

조국 대표 “여수산단 위기 살피는 공식 소통 창구 개설할 것”

여수산단 노동자의 생존과 현실적 대안 마련 토론
“광주전남 행정통합 찬성... 이중 소외 지역 없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공장의 위기 극복 및 현실적 대안 추진을 위한 여수산단과 당의 공식 소통 창구 추진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여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여수국가산단 기업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여수산단 위토포럼’을 가졌다.

조 대표는 석유화학산업의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후 변화와 산단 노동자들의 삶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 여수산단 관계자를 연결하는 공식 소통창구 개설을 약속하고 “우리당이 소통 통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여수산단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장이 건의한 ‘여수산단 전기료 10% 인하’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원위치를 할 수 있는지 및 정부의 방침이 뭔지 등을 따져보고 전남도당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산단 한 노조 지부장은 “그동안 여수산단 기업이 엄청난 영업이익 보고 축적해 놓았으면서도, 위기 상황을 맞아 노동자 해고 등으로 매꾸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많은 노동자가 여수산단을 떠난 마당에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도 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기업이 그동안 많이 벌어들여 축적된 영업이익을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당 차원에서 알아보겠다. 세금으로 들어온 것을 절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노조 지부장은 “그동안 몇 차례 정치인들이 찾아와 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후 여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여수산단 위토포럼’에 참석해 여수국가산단 기업 노동조합 대표들과 여수산단 위기와 문제, 극복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시스

론하면서 각종 건의를 했지만, 이뤄지는 게 없었다”면서 “때론 없고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만난 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순천YMCA에서 순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 혁신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하지만, 광주 이외의 지역이 소

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 통합은 저나 우리 당이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법률 통과와 정책 생산 과정, 예산 확보 등 꼼꼼히 지켜봐서 수도권으로부터의 1차 소외에 이은 2차 소외라는 이중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현직 프리미엄 없다 화순군수 선거판 ‘출렁’

구북구 군수 재선 포기 불출마
민주-혁신 합당? 민주당 경선 후끈

올해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두고 현직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전남 화순군수 선거가 출렁이고 있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구북구 군수가 재선 포기 불출마를 선언한 화순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의원 간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후보로는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과 임지락 현 전남도의원,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강순팔 전 화순군의회 등이 꼽힌다. 맹환렬 화순발전포럼회장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

구 군수의 불출마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주당 내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윤영민 전 부의장과 임지락 도의원, 문행주 전 도의원이 일찌감치 표심에 호소하며 ‘열차락 뒤치락’하는 형국이다. 지역 읍장·도의원 출신이었던 구 군수 역시 7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만큼, 구 군수 지지자들이 일종의 ‘캐스팅 보티’로서 경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구 군수가 향후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힐 지, 지지층이 구 군수와 겹치는 후보가 얼마나 수혜를 볼 지에 따라 당내 경선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희수 친환경 식품업체 포프리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습 합당 제의가 큰 변수다. 만약 민주당 대 혁신당 여권 통합이 6·3지방선거 전에 현실화될 경우, 기존 두 당 후보 간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순군 내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합당 또는 선거 연대에 따른 여러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

만약 두 당이 합당이 무산돼 혁신당 후보가 따로 나온다면, 민주당 경선 후유증이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경선 탈락 후보 중 일부가 절차나 결과에 불복, 표심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연루된 구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원자격정지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아 민주당 공천이 좌절됐다.

최근 구 군수는 최근 “당원 징계 이후 여러 권위와 제안이 있었지만 철수를 넘긴 나이에 만큼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재선 포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화순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민주당 주자 간 경쟁이 유력하다. 같은 당 후보였던 구 군수의 불출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할 것이다. 각 후보마다 구 군수 지지자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포용하려는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뉴스시스

‘민주-혁신 합당설’에 요동치는 전남 담양군수 선거판

혁신당 전국 1호 단체장, 합당 시 ‘민 후보와 경선 vs 전략공천’
경선 땀 민주계 vs 혁신계 맞대결, 전략공천 땀 후폭풍 불보듯
공천률, 민주계 후보 단일화, 경선 패배 지지층 표 향배 등 관심

총선 ‘지민비조’에서 영광·곡성·담양군수 재선거 경쟁으로 ‘형제 정당’에서 ‘프레너미’(친구이자 적)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혁신당 1호이자 유일한 단체장인 담양군수를 둘러싼 선거판도 가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민비조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투표성향이 표심을 지배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고, 이후 우당(友黨)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당은 2024년 10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혁신당이 승리하면서 프레너미(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인지 적인지 모호한 상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담양군수 후보로는 혁신당 정철원 군수를 비롯, 민주당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무소속 최화상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현직 이외 가나다순) 등 5파전이 유력 시되고 있다.

판세는 ‘2강3약’ 또는 ‘2강1중2약’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정 군수와 박종원 도의원이 선두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선 판도는 민주당과 혁신당, 무소속 간 3파전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습적인 합당 제의로 당 대 당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통합당 후보 대 무소속 간 1대 1 맞대결로 급전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 판도는 혁신당 대 민주당, 혁신계

와 민주계 간 양자 대결로 민주당 후보군이 단일화할 경우 정당 지지도 70%를 등에 업고 추세를 들 가능성이 커지고, 혁신당 후보에게 현직 프리미엄에 통합 프리미엄까지 더해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안방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실 수 있다.

이 때문에 합당 지분이나 전략공천 우선권이 혁신당에 주어질 경우 민주당의 거센 저항이 불보듯 뻔하고 민심 이반과 동요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조국 혁신당 대표는 당의 독자적 가치와 정치적 DNA를 강조하며 “지분을 따지면, 모두가 망한다”며 ‘비즈니스적 합당’에는 반대했다. “시골 선거 특성상 정치적 동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혁신당 입장에서 합당을 통해 소수 정당의 한계와 꼬리표를 뗄 수 있고,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더 없이 강한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혁신당 소속 전국 1호이자 유일한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정치도의적으로 공격적

전략을 짜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합당 과정에서 대의명분을 쫓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일부는 전략공천하거나 가 점제를 적용하는 건 관례상 상식이고, 특히 현직 후보가 혁신당 소속일 경우 야속하게 흔들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경선 후유증도 중요 변수다. 민주계든, 혁신계든 공천에서 탈락한 진영은 본선에서 제3의 인물이나 무소속에 전략적 목표를 던질 수 있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민주당 유력주자가 경선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혁신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패배한 전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공동체 중심의 좁은 농촌선거 특성상 약성 루머나 네거티브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되레 역풍을 맞을지도 통례상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 출마자는 “정치에선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며 “특히 담양 정치판은 변화무쌍해 합당이 본격화될 경우 후보와 표심의 이합집산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